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가 2차 공모 심사평

<공연티켓 1+1 지원 공모사업(추가 2차 공모)>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가 2차 공모총 456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어 연극·뮤지컬 분과, 음악, 전통, 무용, 다원 및 대중 예술 분과로 나누어 심사하였다. 전체 456개 작품 중 조건부 66개 작품을 포함 82개 작품이 탈락되어 37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1+1의 플러스 티켓 판매액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객의 선택이 공연과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고, 그 부분을 고려하여 예술성이 높은 공연은 물론 대중적인 공연도 형식 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추가 2차 지원은 2015년의 시행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에 미치지 못한 예술단체등에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1~2월 공연 비수기에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1~2월 공연 시장을 유지하고, 공연 관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관객 유치도 지속하여, 연말에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발생할 공연 시장 냉각을 막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채점 전에 심의위원 간 객관적인 정보 공유와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의 기준인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공연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2015년 공연과 동일한 공연을 하면서 티켓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객의 이해를 고려하여 가격 인상을 인정하지 않고, 기 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가 2차 공모에서 심사대상은 총 456건으로 연극분야 262건, 뮤지컬분야 80건, 음악분야 54건, 전통분야 3건, 무용분야 3건, 다원·대중분야 54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한도 초과 3건, 착오에 의한 중복신청 3건, 자체포기 1건, 지원한도액 도달 1건, 사업자 등록일 부적격 5건, 지원자격 부적격 3건, 필수증빙 미비 31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판단 유보 1건, 가격 조정 조건부 37건(3건은 필수증빙 미비 공연과 중복됨)등 총 82건에 대해 부적격 단체를 탈락시켰고, 이중 미비서류 보완 및 가격 조정에 동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66건을 포함시켜 기한 내 보완 가능한 예술단체를 구제하여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심의기준은 예술성(20%), 티켓가의 적정성(30%),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30%), 단체활동 실적(20%)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별 평가등급에 의해 개별 평가하고 최종 합산 결과에 의해 집계하였다.

본 지원사업은 세월호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침체된 공연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높이는 한편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등 공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연티켓1+1지원사업 추가 2차 공모 심의위원장 일동